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2025 그림책의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7. 30 (화) 오후 2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강당



목 차

그림책 문화의 국내외 동향과 현주소

① 그림책 문화의 국내외 동향과 현주소

김지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3
----------------------	---

그림책 편집자가 본 그림책 생태계

②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본, 어느 작은 그림책 출판사의 현실과 과제

김장성 이야기꽃 대표	11
-------------------	----

③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림책의 출발점

우지영 책읽는곰 주간	13
-------------------	----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까

④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가 그림책 독자를 부추기는 법

이상희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 대표	18
----------------------------	----

⑤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이영경 그림책협회 회장	21
--------------------	----

⑥ 지금, 우리나라 그림책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까?>

정병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26
-------------------------	----

■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 그림책 문화의 국내외 동향과 현주소

그림책 문화의 국내외 동향과 현주소

김지은 (아동청소년문학평론가)

1.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장

지난 7월 11일, 200종 이상의 작품을 쓰고 세계 30개국 이상에 그 작품들을 번역, 출간한 그림책의 글 작가 다비드 칼리가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주일 남짓한 내한 기간 동안 서울 선유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 서울 상신초, 혜화초, 경기 명인초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자신의 작품과 관련된 이벤트를 열고 독자를 만났다. SNS에는 그가 참여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인 2005년 7월, 성곡미술관에서 앤서니 브라운과 존 버닝햄의 원화전이 열렸고 7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그 전시를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성곡미술관 입구에 티켓을 사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고 더위 속에서도 존 버닝햄과 앤서니 브라운의 원화를 보려는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전시장 내부가 후끈했다. 일간지가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할 정도였다. 이번 다비드 칼리의 방문은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언론의 관심은 당시에 비해 차분했다. 이 두 가지 행사 사이에는 무언가 큰 변화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중심에 한국 그림책 문화의 성장이 있다.

다비드 칼리는 이번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백희나, 김상근 작가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2005년이였다면 나오기 힘든 대답이다. 당시 존 버닝햄과 앤서니 브라운의 전시가 우리에게 생소했던 그림책 분야를 우리 독자에게 알리는 역할이 컸다면 지금은 우리 그림책 문화와 해외 그림책 문

화가 비교적 대등하게 교류한다고 부를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것은 규모가 크지 않은 출판사 네 곳이었다. 독자들은 이미 2023년에 존 클라센과 맥 바넷의 대한 행사를 경험했으며 독자들의 반응은 그때보다 더 침착했다.

반면 우리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은 점점 높아지는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내맘속 모두의 그림책전’과 ‘백희나 그림책전’은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2024년 현재 순천그림책도서관에서는 ‘이수지의 무대-여름의 그림책전’이 절찬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전주 국제그림책도서관전은 시민 활동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한결 안정적이면서도 성대한 규모로 열렸고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나 필립 베히터, 수잔네 슈트라서 작가의 작품도 전시되었지만 명실상부한 헤드라이너는 권윤희 작가였다. 이 도시에서 그림책을 사랑하며 성장해온 사람들은 전주라는 도시를 그림책의 도시로 키워내는 중이다. 전주만 그러한 것은 아니다. 원주는 그림책을 일상예술로 만드는 예술 향유자 시민들의 성장 서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으며 순천은 일본을 비롯한 그림책의 선발 국가에서도 전문가들이 먼저 찾아오는 알찬 기획의 입체적 전시를 여러 차례 성공시켰다.

지난 10여 년 세계 그림책 무대에서 펼쳐진 우리 작가들의 활약은 그림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열정으로 연결되었다. 이 열정은 아직 정확히 체계를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어서 아슬아슬한 지점이 없지 않으나 긍정적인 동력을 지니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독자들은 더 이상 해외 그림책, 특히 영어권 그림책에 무조건 환호하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해외의 작가들이 찾아왔을 때도 대등한 태도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독자 질문을 들어보면 그림책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림책 문화에 달려 있다는 이른 기대도 느껴진다.

2.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위기

그런데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그림책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 몰랐다는 말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

고, 그림책에 대한 여러 잡지의 특집 기획이 그림책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 제언을 던지고, 대한민국 그림책상이 제정된 것을 비롯해서 그림책이 제도권 안에서 언급되는 빈도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예전보다 더 긴박하다. 출판인쇄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가차 없이 삭감되고 특정한 분야는 예산이 제로에 수렴할 정도로 낮아졌다.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그림책 예산은 줄어드는 않았어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창작자들에게는 예산의 실체가 잘 와 닿지 않는다. 다른 분야에서는 “그림책은 요즘 좀 잘 팔리지 않나요?”라고 말하는데 그림책 제작 여건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판매량은 외부의 화려한 열광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그림책을 만드는 여러 작가들은 자신이 이렇게 소리 없이 고사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마지막 작품을 밀어내듯이 작품 창작에 몰두하고 있다.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이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흐름은 잘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책의 종수가 늘어나면서 마케팅 경쟁만 치열해졌다. 물가 상승에 따라 제작과 유통비용이 몇 배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림책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새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조율해야 하는 여러 현실적 조건도 점점 절박해진다.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기가 이미 닥쳐 와 있고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어떤 책이 잘 팔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다. 그림책 작가들의 세미나에서도 판매와 영업에 대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밖에서는 잘 된다고 하는데 안에서는 더없이 힘겨운 상태라 심리적으로는 더욱 버티기 어렵다. 조금만 더 하면 세계적인 작품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신진 작가들을 독려하는 주위의 과열된 분위기는 이제 시작하는 작가들을 더욱 큰 우울감 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실제로 그림책 작가들의 고립감은 비대면 시대를 거치고 출판 불황을 겪으면서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졌다. 중견 작가들조차 그림책 판매량이 급감한 현 위기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마케팅에 집중된 출간 전략은 투자가 필요한 신인 작가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각종 공모전이나 신인 모집의 장치들도 이후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작가들이 이미 경험으

로 알고 있다. 신진 예술가들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애써 어렵게 마련한 젊은 그림책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 토대가 한꺼번에 무너져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어느 조직으로부터도 격려를 받기 어려운 그림책 작가들을 위해 심리지원을 포함한 생계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그림책의 발전을 만들어낸 것은 작가 개인들의 희생과 노력이었다. 그 희생으로 성장한 것은 특수한 조건에서나 가능했던 개별적 기적이다. 한국의 그림책을 자랑스러운 예술 콘텐츠로 내세우겠다는 것이 정책집단의 계획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작가들이 작품을 그리고 쓸 수 있도록 기본 토대는 생존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시작된다. 민간의 자조모임이나 공동체적 해결의 노력과 별개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한국 양궁이 40년 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후원과 체계적인 신인 발굴 및 교육 시스템이었다고 말한다. 선수는 계속 바뀌지만 한국 양궁의 노하우와 실력은 달라지지 않으며 더욱 성장한다는 것이다. 우리 그림책이 이루고 있는 성취에 대해서 국가적 자랑으로 내세우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인 작가와 성장 중인 출판 전문가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작가들의 심신 건강을 위한 지원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노력이다. 기초 생계를 위한 지원책과 더불어 고립된 창작 환경에 놓인 1인 예술인의 특성상 심리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초생활지원금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복지 지원과 창작 지원이 병행되었을 때 창작자의 예술적 성취 의지와 성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풍부한 경험을 지닌 선배 창작자에게 일정 횟수 이상의 멘토링을 요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었다. 멘토링은 일종의 심리 지원 역할을 했다. 한 사람의 신진 예술가가 성장하려면 이와 같은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하다.

3. 그림책을 향유하는 방식의 다각화

우리 사회가 그림책을 향유하는 방식은 나날이 새롭게 그 영역을 넓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달라진 국가 예산 집행 내역들을 살펴보면 작은 혈관과도 같은 독립책방이나 작은 도서관과 전시장, 그림책을 읽는 독자 공동체, 학교 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부분은 대폭 줄어들었다. 민간에서 오랜 노력으로 구축해온 그림책 감상의 문화와 그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향유 방식들은 갑작스럽게 막다른 골목에 놓인 셈이다.

다음은 지난 2024년 1월 한 달 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그림책 관련 이벤트를 정리해본 것이다. 이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얼마나 다양한 구심점들이 그림책 문화를 펼쳐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민도 있다.

그림책 향유의 중요한 거점으로는 독립 책방들의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본다. 서울 연희동의 달걀책방은 ‘그날 밤 계란말이 버스 아트 프린팅 전시회’ (김규정 작가 전시회, 2024년 1월 4일~1월 28일)과 ‘사라진 나라의 이야기꾼,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명아 번역가 진행, 2024년 1월 24일, 1월 31일)을 열면서 그림책의 그림과 글에 대한 독자들의 경험을 넓히는 행사를 마련했다. 서울 합정동의 B플랫폼은 ‘종이의 특성과 활용 원데이 워크숍’(두성종이 손지희 강의, 2024년 1월 14일부터 3차 진행)을 열어 그림책 작가와 출판인들이 물성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책방질은은 ‘김선진 작가 그림책 원화전: 나의 작은 집’ (2024년 1월 26일~ 2월 13일)을, 책방사춘기 ‘오승민 작가 그림책 원화전: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2024년 1월 26일~ 2월 12일)을 열어 독자와 작가의 직접적인 접점을 마련했다.

작은 출판사들은 그림책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애썼다. 제 1회 김은미 그림책상 공모(이야기꽃 출판사, 온다프레스 출판사, 출간 및 미출간 그림책, 상금 200만원)는 두 곳의 작은 출판사가 함께 준비한 것이다. 작고 낮은 존재들을 비추어온 그림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잃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는 작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이다. 작은 출판사들이 마케팅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신간홍보 마케팅 플랫폼인 ‘뉴북나우

꿀시사회'의 경우 출판사나 작가에게 22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여러 경로의 온라인 홍보 지원을 실행한다는 공지를 내보냈다.

큰 출판사들은 마케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교사 및 사서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었다. 웅진주니어는 티테이블 교사/사서 서포터즈 (매월 1회 1권 도서 증정, SNS와 온라인 서점 1곳에 서평 및 리뷰 게재 조건)를, 문학동네는 교사 서포터즈 '몽끄' (매월 1회 1권 도서 증정, 도서 수령 후 2주 이내 SNS와 온라인 서점에 서평 및 리뷰 게재 조건)를 모집했다. 교사가 그림책에 관심을 갖고 활발하게 활동하며 어린이 독자와 연결점을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교사와 마케팅이 직접적인 보상과 연결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과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책이 전시라는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새해 초반부터 관련 소식이 많았다.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은 '그림책 인형, 만나볼래?- 세계의 그림책 캐릭터전'(2023년 12월 22일~2024년 1월 31일)을 열었다.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팔복예술공장, 전주시립도서관, 지역서점, 2024년 5월 31일~6월 23일)은 1월 초순부터 홍보를 시작했다. 송파글마루도서관 '2024 청룡호 기차가 출발합니다: 정호선 그림책 전시'(2024년 1월 9일~ 2월 23일)은 새해와 어울리는 전시를 기획했으며 파라텍스트 갤러리는 '찍다 그림책: 이소영 그림책 판화전'(2024년 1월 12일~1월 28일)을 열면서 그림책 원화 갤러리의 출발을 알렸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그림책 향유자인 어린이들에게 현대 미술의 핵심적 의미들을 보여주는 '곰곰이와 찬찬이'(2023년 11월 1일~ 2024년 2월 18일) 전시를, 알부스갤러리는 '아주 커다란 휴식: 서수연 개인전'(2024년 2월 1일~ 3월 3일)을 열었다. 마포구립 서강도서관은 '1795년 정조의 행복한 행차 원화전' (2024년 2월 1일~ 2월 29일)을 열어 독자와 그림책을 연결했다. 그림책향 출판사는 워크숍 28,29기 2024 겨울전 (2024년 1월 19일~ 1월 28일)을 개최해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였다.

온라인 북토크는 익숙한 행사가 되었다. 국내 작가들의 온라인 북토크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거의 날마다 열리고 있으며 해외 작가 북토크들도 종종 독자를 만난다. 맥 바넷과 손 해리스 작가는 <처음 우주에 간 고양이와 죽음의 수프> 출간 기념으로 1월 25일에 온라인 북토크를 열고 한국 독자를 만났다. 2024년 2월 1일에 열린 이경혜 작가의 <봄은 또 오고> 북

토크처럼 번역가가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독자를 만나는 경우도 늘었다. 그림책이 공연과 만나는 경향은 특히 가족 뮤지컬 분야에서 활발하다. 백유연 작가의 <벚꽃 팝콘>은 뮤지컬로 창작되어 서울 뮤즈 라이브홀 시작으로 원주 백운아트홀까지 전국투어를 예고했다.

그림책 관련 전문적인 강좌도 여러 건 있었다. ‘거장들과 함께 걷는 그림책의 해석의 길: 김난령 연구가/번역가와 함께’(2024년 1월 17일~ 2월 20일. 상상마당 홍대아카데미. 이론 강의 3회. 워크숍 1회)에서는 레오 리오니, 존 클라센, 마리 도를레앙, 김병하, 유리 술레비츠, 헬렌 옥슨베리, 시드니 스미스, 모리스 샌닥, 앤서니 브라운, 볼프 에를브루흐의 작품을 다루었다. 그림책 부트캠프가 연 ‘아름다운 종이 그림책의 비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한국 그림책 8선’(류영선 강의. 그림책 부트캠프. 온라인 강의. 2024년 2월 24일부터 8주간)도 예고되었다. ‘그림책 시각과 표현 읽기’(유문조 강의.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2024년 3월 6일~ 6월 26일. 온라인. 15차시)도 이 무렵부터 수강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림책 아카데미는 곳곳에서 1월부터 다양한 강좌를 열었다. 그림책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기본 상식, 그림책 기획 입문, 그림책 글쓰기 워크숍, 그림책 글작가 입문반, 그림책 심리지도사 양성과정, 그림책 지도사 양성과정,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더미북 제작, 그래픽노블 스토리텔링과 더미북 제작, 아이패드로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 출판 기획 편집 워크숍 등은 아카데미에서 열리는 강좌의 명칭들이다. 그림책 테라피와 큐레이션 관련 강좌도 많아서 기초 그림책 테라피스트 양성과정이나 그림책 큐레이터 자격증 과정도 수강자를 모집했다. 그밖에 그림책 인형 만들기 강좌도 지역 도서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열리고 있었다. 양육자를 위한 그림책 페어런팅 리딩클럽이나 그림책 활동가 코칭, 그림책 뇌운동 프로젝트(오픈카톡 채팅방. 일일 미션 제시. 3주. 5만원) 같은 강좌의 수강생 모집도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그림책 향유 문화는 오프라인과 어느 정도 접점을 유지하는 경우들만 예시로 든 것이고 실제로 더 큰 그림책 향유 문화는 온라인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부분은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원제 카페나 밴드에서만 내용을 공유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각종 그림책 향유 방식이 공유되고 있음에도 그

림책의 판매량이 적고, 그나마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과 더불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그림책의 해를 준비하며

이 부분은 길게 언급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그림책 정책이 아직 마련되기 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025년 그림책의 해는 그림책에 대한 여러 여건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천의 의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그림책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림책 문화는 보기 좋은 장식용 케이크가 아니며, 그림책과 함께 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예술가의 열정과 공통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생물과도 같은 것임을 정책 담당자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생물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절실하게 돕지 않으면 죽는다. 대충 살리는 방법은 없다. 이것은 그림책 문화도 마찬가지다.

■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 그림책 편집자가 본 그림책 생태계

**‘생태계’라는 키워드로 들여다본,
어느 작은 그림책 출판사의 현실과 과제**

김장성 (이야기꽃 대표)

*생태계(生態系, 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 주체와 환경의 유기적 체계

그림책 ‘생태계’의 주체와 환경

주체

-생산자 : 작가, 출판사, 생산 관련 교육기관 등 유관 단체

-매개자 : 서점, 권장자(관련기관단체, 사서, 교사, 평자, 활동가)

-소비자 : 독자, 도서관, 학교...

*소비자(독자)보다 생산자(작가, 출판사, 창작교육기관)가 더 많다고 느껴지는 상황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보다 그 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상황

: 저작물 이용 요청 메일 월 10~20 건 / sns 게시물들

환경

-시장 (전체 시장 상황 / 동종 출판사)

-미디어 환경 : 할많하않

-사회 : 경제, 문화, 교육, 정부,... 정치적 현실의 총합

*그림책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문화는 확산하고 있으나 그 밖의 모든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 그림책 출판사 증가

: 그림책 출간 종수 증가

: 그림책 활동 교사층의 작가/번역가 데뷔 급증

생산 주체의 하나로서 이야기꽃의 현실 : 지속가능성의 위기

-생산의 조건 : 창작자 역량의 질적 양적 수준 상승 / 매출의 지속적 하락

위기의 원인 분석

-마케팅 경쟁력을 제외한 환경적 조건은 전체 주체에 동일...

*시장(동종업계)에서 경쟁력 부족의 악순환

-주체의 문제

: 소구력 부족 (선택받지 못하는 책들)

: 소구력 부양능력의 부족 (인적, 물적, 통찰력과 실천력)

위기 원인의 원인과 현조건에서의 타개 방안

-읽혀야 읽는 책

-가치를 짚어 줘야 하는 책

->제도적 권장자들과 협력 필요 : 읽힐 가치를 알리는 홍보마케팅 활동

*국가기관(진흥원)의 지원 사업 : 약과 독이 혼재한 지원

■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 그림책 편집자가 본 그림책 생태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림책의 출발점

우지영 (책읽는곰 주간)

‘그림책 작가’의 탄생

지난 10년간 그림책 출판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그림책 작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등장일 아닐까 싶다. 1988년 류재수의 《백두산 이야기》(통나무)를 시작으로 이른바 ‘창작 그림책(개인적으로는 이야기 그림책이라고 부르고 싶다)’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그 뒤 20여 년에 걸쳐 출간된 창작 그림책이 오늘날 우리 그림책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작가들의 자기 정체성이 그림책 작가는 아니었다. 그들 대부분이 동화 작가,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어린이 문화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림책 작업에 임해왔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그림책 작가’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작가군이 생겨났다. 그 배경에는 우선 2016년 ‘그림책은 어린이 문학의 하위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라는 주장과 함께 탄생한 ‘그림책협회’가 있다. 아울러 백희나와 이수지를 필두로 우리 독자가 이름으로 기억하는 우리 작가, 해외 평자와 독자가 주목하는 우리 작가와 작품이 생겨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시도와 변화는 ‘글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보는 책’으로 여겨졌던 그림책의 지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은 물론이고, 그림책 작가 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대학, 사설 학원, 독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로를 거쳐 새로운 작가(또는 예비 작가)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다.

그에 따라 그림책 창작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백희나가 ‘3D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를 개척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고, 이수지가 그림으

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힘과 책의 물성을 이용한 작업으로 그림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서현이 《눈물바다》(2009, 사계절)로 어린이의 내밀한 욕망을 드러내는 한편 디지털 세대의 취향에 맞는 경쾌한 비주얼을 그림책에 들여온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갑규가 2015년 《진짜 코파는 이야기》(2014, 책읽는곰)로 한국출판문화상을 수상하면서 어린이책이라면 마땅히 뚜렷한 주제 의식이나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엄숙주의가 깨지기도 했다. 또한 조원희가 《근육 아저씨와 똥보 아줌마》(2012, 상출판사), 전미화가 《빗방울이 후두둑》(2016, 사계절), 고정순이 《가드를 올리고》(2017, 만만한책방)를 시작으로 그림책의 독자층을 확대하는 그림책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지금 우리 그림책은 그 역동적인 시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5년에 이지현의 《수영장》이 미국 일러스트레이터협회 ‘2015 최고의 그림책상’을 수상하고 뉴욕타임스 ‘2015 주목할 만한 어린이책’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백희나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2022년에는 이수지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스센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한국 작가와 작품이 해마다 수상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지현의 《수영장》이 포문을 연 뒤 ‘넘사벽’으로만 여겨지던 우리 그림책의 영어권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림책 작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 온 첫 세대가 장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보다 깊고 넓은 작품 세계를 선보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져 간다. 그와 더불어 그림책 출판계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좀처럼 메워지지 않는 허구렁이 존재한다.

어린이가 빠져 있는 그림책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K-BOOK 진흥회가 주관하는 한일출판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그림책 편집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편집자에게 듣는 한국 출판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스피치를 한 뒤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데 가슴 뜨끔한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 그림책은 일러스트레이션이 강점이고 세계도 지금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린이의 마음에 남을 만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만남에서도 “한국 그림책에는 어린이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런 지적은 국내에서도 들려온다. 이른바 ‘책 육아’로 유명세를 얻은 엄마 유튜브 버는 3-5세 아이들에게 읽힐 만 한 우리 그림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에 ‘맘카페’에서 3-5세 그림책으로 엄마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림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외국 그림책으로 이루어진 단행본 시리즈나 전집이다. (비룡소의 ‘사각사각 그림책’ 시리즈, 그레이트북스의 ‘도레미곰’, 무지개 출판사의 ‘추피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맘 카페에서는 ‘추피앳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양육자 입장에서야 외국 그림책이든 한국 그림책이든 내 아이가 좋아하고 내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그만이다. (게다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같은 양육자들이 보증하는 책이지 않은가!) 하지만 그림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그림책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듯 보이는 지금, 정작 그림책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 아이들은 외국 그림책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다.

3-5세 아이들이 볼 만한 우리 그림책이 부족한 현상은 그림책 작가들이 어린이를 잘 모르고, 더 알고자 하지 않고, 몰라도 된다고 여기는 것이 한 원인이라 생각한다. 왜? 그림책은 어린이 문학의 하위 장르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예술 장르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다. 그림책의 장르적 특성이나 매력은 글을 잘 모르고 삶의 경험이 부족한 어린이를 독자로 두고 있는 데서 생겨났다고 믿는 까닭이다. 그런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어찌면 작가들도 그 어려움을 알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림책의 독자 대상을 확대해 가는 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보는 그림책’은 그림책 작가나 편집자라면 당연히 품어야 할 로망이다. 다만 ‘0세부터 보는 책’이 그림책이라는 장르의 출발점이자 정체성의 일부라는 점을 잊지 말자는 말이다.

그림책 편집자의 부재

출판사에, 아니 출판계에 오래 머무르며 그림책을 전문으로 만드는 편집자와 디자이너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그림책 작가와 작가를 지망하는 이들은 늘어났지만,

그들과 함께 책을 만들며 함께 나이 들어갈 그림책 편집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선 지난 30년간 쌓아온 그림책 기획과 편집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 줄 선배들이 출판사 내부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림책 편집에 새로 발을 들인 후배들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거듭하며 지난 30년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체득해야 한다. 물론 독자로서 그림책을 ‘경험’한 세대가 늘어나면서 그림책을 ‘학습’해야 했던 선배들보다는 유연하게 적응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신입 편집자나 디자이너라고 해서 그림책 기획과 편집, 디자인의 중심에 어린이를 두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솔직히 ‘어른인’ 자신의 취향과 판단이 보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출판이 사양 산업이라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채고 출판계를 떠나는 신입들도 적지 않다. 최근 들어서는 그림책 편집을 하겠다는 지원자조차 부쩍 줄었다.

그림책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작가와 편집자 간의 긴밀한 교류와 깊은 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시기의 과제를 잘 해결해 작품에 담을 수 있도록 돕는 가운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그런 만큼 그림책 편집자가 점점 줄어드는 지금의 상황이 몹시 걱정스럽다.

산업 예비군들에게 출판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자면 출판계 내부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2002년에 공개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공공대출보상권 문제, 2021년 기준으로 1,200여 곳에 못 미치는 전국의 국공립도서관과 법정 최소 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공도서관의 장서와 사서 수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출판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도서 출판과 보급, 교육을 위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출판은, 더욱이 어린이책 출판은 책을 생산하고 파는 행위로 한정해서 바라볼 분야가 아니다.

‘0세부터’라는 말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0여 년간 어린이책을 만들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어린이의 즐거

움'이었다. 살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글로 배운' 사람으로서, 가끔은 사람보다 책이 더 좋은 사람으로서 어린이에게 책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즈음에는 한 발 양보해 '책도' 재미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거기에 책임감 하나가 더 보태졌다. 어린이책, 특히 그림책은 출판의 최전방에서 최후까지 버텨야 할 분야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책임감이다.

그림책은 어린이가 인간과 세계의 밝고 어두운 면, 인간사의 행과 불행을 가장 안전하게 경험하도록 해 주는 매체이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잇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체이기도 하다. (우리 출판사의 모토가 '어린이책으로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다'였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많은 것이 해결되는 시대이기에 책이 주는 연결감이나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더더욱 중요해지기도 했다. 수많은 정보를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파편적인 정보를 체계화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을 오롯이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도 책이라고 믿는다. (스웨덴 정부가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어린이의 문해력과 학습 능력 저하를 겪은 뒤 각급 학교에 배당되는 도서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 바로 지난해의 일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 새삼 책을 찾을 리 없다. 어린이가 책 읽기를 즐거운 경험이라고 느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것이 본디 내 일이지만, 지금은 그것이 출판 산업이 존속될 수 있도록 떠받치는 일이자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

그림책 작가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이들이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림책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도를 뒷받침하는 일도, 그림책 독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일도 중요하다. 어린이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형편이라 후자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그 중요성이 커졌다. 어린이 독자의 빈 자리를 채워 줄 어른 독자가 절실해진 것이다.

그럼에도 그림책이 가장 먼저 가 닿아야 할 대상은 어린이다.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도 어린이다. 책을 즐기는 어린이가 늘어나야 출판의 내일도, 우리의 내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가 그림책 독자를 부추기는 법

이상희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 대표)

우리 모두에게 ‘그림책’과 ‘그림책’센터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답은 우리 모두에게 ‘예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답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림책 전문 도서관 패랭이꽃그림책버스 20년, 그림책 전문가들의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 10년, 그리고 그림책 시민문화 거점 공간 원주시그림책센터 3년이 차근차근 원주 그림책도시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원주시 자치법규 제 2228호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표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수탁 2기의 목표는 모든 지역민이 생애 주기별 그림책 문화를 향유하며 서로를 초대하고 환대하는 품격있는 삶의 정주 공간, 글로벌 그림책 도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원주시그림책센터 일상예술 2021-2023 활동보고서>_‘여는 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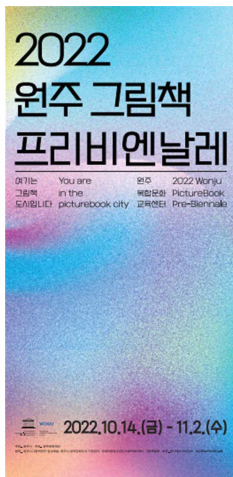
다양한 감흥을 즐기면서 그림책 예술 세계로 안내한다

_큐레이션 서가, 체험 활동, 깊이 읽는 법을 통해





_다양한 전시 축제 행사를 통해



_그림책 창작 워크숍 체험



_그림책 예술교육 체험



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의 태생지 및 소재지는 원주 지역이다. 그림에도 그림책의 범용성 덕분에 우리가 물리적 장소를 한정해 사고한 적은 드물다. 그렇다. 그림책 독자는 0세부터 100세 전 세대이며, 그 예술성은 세계적이고 현지적이다. 원주에서 실험하고 구현한 일들이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

이상희_사회적협동조합 그림책도시 이사장, 원주시그림책센터장 일상예술

■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까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이영경 그림책협회 회장

작가는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협회는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출판사는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서점은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도서관은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학교는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연구자는 독자의 그림책 독서를 어떻게 복돋을 것인가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복돋우려는 이번 포럼의 주제에서 그림책의 가치를 이미 전제하고 있음이 보인다. '어떻게'라는 방법론에 앞서 목적성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그림책의 고유한 가치를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겠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그림책의 선한 잠재성에 착안하고 그림책협회가 창립을 이끌었던 기본이념이 있었다.

'그림책은 어린이도서의 한 형태' 라는 인식을 깨자.'

'시각예술의 문학적 형태' 라는 관념도 깨자.'

'그림책은 독립예술이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일컬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열거하여 정의한다. 이때 문헌정보상의 분류나 기관 단체의 지원금 공모사업에서 그림책은 문학의 하위 분야에 속한 종목구분을 따르게 된다. 그림책의 주요 언어인 '그림 / 이미지'가 문학의 범주로 분류되는 오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협회창립의 취지가 정립되었다.

그림책을 하나의 고유한 예술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림책에 대한 인식확장, 창작여건 개선, 관련제도 및 정책수립 등 그림책문화, 그림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파트너로서의 기능과 그림책 관련 종사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나가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이나 서점 등 분류체계가 필요한 곳곳에서 여전히 혼선은 있지만 그림책은 요 근래 국제무대에서의 선방과 자체 동력으로 매체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그림동화' 아닌 '그림책'으로, '동화작가' 아닌 '그림책작가'로 매체와 직업구분에 대해 뜻있는 우리, 작가, 연구자, 활동가들은 그림책의 개념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분주하게 교정한다.

그림책의 중심주제에는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품고있다. 그런 특성이 독자층을 어린이에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모든 어른은 어린이를 거쳐 어른이 되었고, 내면에는 어린시절이 인성적 바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관과 감성, 기억을 축적하며 현실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무의식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는 장본인이다.

글과 이미지가 상호작용하여 조화롭게 형성된 의미를 일련의 연속된 장면으로 펼쳐내는 그림책이 연령, 성별, 계층의 벽을 넘어 심금(心琴)을 울리기까지에는 쉽지않은 우리 사회관념의 벽이 있다. 감각에 호소하는 '쉬운' 측면이 오히려 접근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다.

힘들게 발전을 이루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성공신화와 경제개발의 역군모델을 귀감삼아 배워온 신중년 세대에게, 쉽고 감각적인 것은 퇴행적이고 수준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성은 누구라 탓할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다. 이는 단지 노장년층에게 국한된 사고의 틀이 아니다. 쉬움과 한가함이 오히려 불안증을 유발하는

어려운 성장시대를 살아온 계층의 사고패턴은 뒤이은 세대의 정신세계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책의 해 추진단>에서 제시한 2020년부터의 5개년사업을 위해 구분한 연령대 즉, 60+ 노년, 4050중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독자층 전반에 걸쳐 그림책이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교육적, 제도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일례로 요양보호센터나 시니어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그림책을 접하거나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등 그림책의 잠재된 가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인생후반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돕는 프로젝트가 몇 년 새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림책이 시니어독자들과 만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느린 삶.’

그림책을 제대로 체화하는 것은 느린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북돋울 것인가'라는 주제가 어떤 일인지 뇌리에 잘 입력이 되지 않는다. 아마도 '북돋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담감인 것 같다. 하지만 약으로 쓰려면 어떻게 먹일지 고민하는 일과 같이 좋은 것을 어떻게 '스미게' 할 지의 다른 표현인 듯하다.

<책의 해 추진단>에서 2020년부터 해오던 연령대별 책사업을 돌아보니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토록 책임기를 계몽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나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취미란에 '독서'라고 흔히 쓰는 학창시절부터 책이란 여러 취미 중의 '원 오브 템' 일 수가 있는가 의구심이 일었었다. 나의 취미는 물론 '독서'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나는 난독증에 가까웠다는 것이 최근 돌이켜 생각하여 얻은 결론에다가, 세상 자체에 대한 문해력이 떨어지는 인간이라서 아마도 '책의 해 추진단' 사업의 어린이, 청소년 수혜자였다면 인생이 좀 나아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림책작가의 저변도 넓어지고 출판경향도 전집과 시리즈물 일색이던 30여년전 분위기와 다르게 단행본 창작그림책이 봇물 터지듯 생산되는 지금은 해마다 그림책의 종 수, 권 수가 최고점을 찍는다.

독자는 즐겁다. 하지만 우리들만의 리그이다. 아직 갈 길은 멀고 창조적인 돌파

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왜냐면 그림책은 관념만을 스치는 매체가 아니고 스펙 쌓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림책은 심금을 건드리는 매체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회를 더 나아지게 하는 매체이다. 그래서 그림책을 곁에 두고 일상적으로 구매하고 경조사에 선물로 내미는 풍토를 만드는 등, 독자층을 넓혀가는 일은 곧 사회를 변화시켜 가는 일이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닌, 그림책이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편안함이 깃들고 우리 사는 세상이 안전해지는 것이다.

"심금을 베풀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도 같다.

심금(心琴)이 예민하게 튜닝이 된 마음에 그림책은 보다 정교하게 스며들 것이다. 역으로 그림책은 우리 마음의 현을 달래고 정돈한다. 우리 사회의 심금은 어떤 상태일까. 예술을 향한 일상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지 않는 사회이다. 개인의 생활에서 공기관의 제도와 정책에 이르기까지 생존모드의 쳇바퀴에서 한 발 떼는 것에 두려움이 늘 도사리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든 우선이긴 하지만 생존모드로만 살다 보니 그만 내려놓아도 되는 수위를 감히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말로는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 고귀한 삶이고 국가는 '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헌법에 적어 두긴 했으나 창작자는 기본 생존을 위해 창작을 보류해야 하는 상황이 일반적인 악순환으로 남아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재정지원과 민간단체의 기획,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책방은 문을 닫고, 도서관은 편중된 수서에, 학교는 초등 저학년으로 그림책을 제한하고 입시에 사활을 걸고 시험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과정 속에 경쟁과 순위매김으로 청소년 시절은 얼룩진다. '지금'의 행복을 '내일'에 연속 헌납한 삶의 질은 생애주기 전반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만다.

2025년에는 보다 멀리 바라보는 문화정책과 그림책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림책은 어느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연령대와 대화가 가능한 미술관이고 철학카페이다. 그림책은 한 사람의 일생 초반에 접하기 쉬

운 책이라는 것은 당연 하긴 하나, 굳이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책읽기를 권하고 싶다면 독서습관의 마중물로 활하기에 그림책이 적합하다.

학교나 도서관에서의 부모교육, 동아리지원이 제도화 되길 바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요양보호센터에서 단순히 건강한 노후와 여생 소일에 격리될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대가족 또는 마을 공동체가 그랬듯이 국가 시스템 위에서 그림책을 통해 각 계층이 소통하고 성장을 돕는 기회를 창출하게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맨 앞에 제시한 그림책산업의 각 직군 구분은 그림책협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토대로 제시한 모델이기도 하다. 독자들이 그림책을 보다 깊이 있고 폭 넓게 접하고 작가들과 소통하고 그림책의 마음을 체화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현장에서 다층적 연령대, 다종다양한 커뮤니티를 겨냥하여 다채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구상되길 기대한다.

사회통합의 자원으로서 그림책이 역할을 할 것이다.

〈책의 해 추진단〉의 연령대 구분에 의한 사업아이디어 예시

60+: 도서관, 학교, 기관, 센터에서 책읽어주기 활동.

요양보호 센터, 시니어클럽에서 그림책 동아리활동.

시니어대상 북스타트.

작가와의 만남

4050: 문화센터, 자치기관 단체지원 그림책관련 활동가 양성.

중고등 학부모 교육.

교장선생님의 그림책 읽어주기.

작가와의 만남

청년: 그림책서점에서 책을 구매 장려.

직장단위에서의 그림책 독서클럽.

초등 학부모 교육.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그림책서점, 도서관에서 독서활동과 철학토론.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서로 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학교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다.

작가와의 만남

■ 제2회 책읽는사회 독서정책포럼 ■ 그림책 문화의 현재와 미래
-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까

지금, 우리나라 그림책 그림책과 독자의 만남, 어떻게 복돋을까?

정병규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그림책을 바라보는 시선 셋

우리나라 그림책을 폭넓게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1. 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시민 사회.
2. 돈을 집행하는 공기관.
3. 내게 맞춰 이용하는 애호가층.

하나는 지난 일이지만 교보생명이 서울의 상징성 있는 지역에 있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과 강남 교보타워 두 곳의 사옥 바깥벽에 그림책의 한 장면을 펼쳤었다.

1991년부터 30여 년간 게시해 온 ‘광화문글판’인 이 그림 위에는 김춘수 시 ‘능금’의 한 구절 배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이 회사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글판’에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김춘수 시 ‘능금’으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이 시와 함께 들어간 그림은 이수지 작가의 작품 ‘과도야 놀자’에 나온 한 장면이다.

이미 2009년 류재수 작가의 ‘노란우산’ 그림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다른 또 하나. 군포시에서 2023년 9월 개관한 군포 ‘그림책꿈마루’다.

2023년 군포시에 문을 열었던 ‘그림책꿈마루’는 ‘그림책’이라는 명칭을 쓴 최초의 독립된 공공기관으로 출발한다. 햇수로 7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열게 되는 이 시설은 처음에 경기도에서 해마다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이라는 일종의 공개 경연에서 ‘그림책박물관공원-PUMP(Picturebook Underground Museum Park)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100억의 교부금과 시비 76억원을 들여 착수한 것이 발단이다.

한 도시가 그림책을 모델로 시설을 만들어 가는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최근 수년간 원주, 순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이 그림책이라는 명칭 뒤에 도시, 도서관 등을 썼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3년째 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그림책 책방, 그림책마을, 그림책테라피, 그림책카페, 그림책심리치료, 그림책예술교육 등 명칭 앞에 그림책을 쓰고 있다. 대학에서는 그림책 강좌를 개설하여 집중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며, 심지어 그림책으로 학습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행하는 곳도 일부 지역에서 생겨나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농촌 마을공동체에서도 작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통해 직접 그림책을 만들어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널리 퍼져 있다. 이미 그림책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는 이들도 수없이 많아졌다. 이른바 일부 작가의 ‘팬덤’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그림책의 생태계가 확장 일로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은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로, 세대 변화에 따른 수요층이 늘고 있는 것. 우선 해마다 100여명 이상의 신인 작가들의 데뷔로 작가층이 날로 두터워지고 있고 출판사와 함께 발행량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어린 시절의 독자들이다. 1980년대 전집그림책 세대, 1990년대 창작그림책 세대가 30대와 40대의 부모 세대가 되면서 성인이 된 자신들을 포함하여 어린이에게도 그림책의 감성을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이다.

도시, 기업, 기관, 개인까지 포함하여 그림책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는 한 가지 점만 빼면 무척 좋은 일이다.

그림의 한 장면만 소비한다든가 겉치레의 도구로만 이용할 때 한 부류의 미술사조처럼 어느 날부터 홀연히 모습을 감추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림책 생태계는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유통, 책방, 도서관, 독자 등 모두 함께 만들고 키우고 재생산하면서 성장하는 예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모두 좋은 일들이지만 휘발성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만들고 구입하고 저장하고 폐기될 때까지 성심성의를 다 바쳐야 한다. 그림책 발행출판사 655개(2023년)와 1종 이상 책을 낸 작가가 2,200여명(2023년 집계) 이상에 이르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그림책을 보는 독자만 전국적으로 4,000여명(도서관, 동호회, 도서단체 등 모임 추산)에 이르지만 소비하는 정도 이상으로 그림책을 공식적으로 평론하는 공간은 아직 없다. 에세이나 감성이 아닌 시각 언어로 그림책을 ‘다면 분석’하는 사례가 쌓여져 있지 않아 아직 우리 그림책의 바탕은 취약한 편이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5년간량은 더 지나야 할지 모른다. 지금 달아오른 환경에서 일부는 이 기본에 충실한 일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그림책이 살아남는가

어렵게 만들고 세상에 나온 책이 아주 오랫동안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림책의 세계도 변화를 거듭한다. 이미 35년 전에 출간된 국내 창작 그림책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백두산 이야기>(1988년, 통나무, 초판 발행)가 거의 유일하다. 단행본 창작 그림책의 본격 출간이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그림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지만 아쉽게 사라진 책들도 있다. <산 동아줄과 죽은 동아줄>(서정주 글/조선시대 민화 변형 그림, 민음사, 1993년)은 ‘우리나라 신선 선녀 이야기’ 5권의 시리즈 중 1권이었는데 아쉽게도 사라졌다. 다른 4권 역시 <선녀와 빠꼭새>, <견우와 직녀>, <연꽃 이야기>, <하느님의 아드님과 백일홍 꽃나무>의 옛이야기로 이 책들이 독특한 점은 호안 미로, 마티스, 반 고흐, 칸딘스키의 그림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한 일종의 실험적 그림책이었다. 출간 당시에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시도한 디지털 방식의 표현 양식에 무척 생소한 반응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PC에서 베이직 언어로 어렵게 점, 선 등을 표현하던 때 매킨토시의 아도브 일러스트레이터로 쉽고 정확하게 자유 곡선을 그을 수 있었고 그 선들을 오브젝트 단위로 수정이 가능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디자인을 하던 디자이너들에게 커다란 혁명적 병기와의도 같았다.

그 외에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펜더 싱싱>,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펜더 랑랑>(1992년, 비룡소)도 작가 강우현의 야심작이었다. 주인공 펜더를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처럼 세계적인 캐릭터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완성했는데 이 작품들 역시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작업으로 제작 되었고 CD-ROM 작업까지 염두에 둔 일종의 프로젝트 그림책이었다.

당시 그림책 출판이 활발한 곳은 계몽사, 국민서관, 동아출판사, 민음사, 보리, 보림, 웅진, 한림, 한샘, 현암사 등이었는데 이들 출판사 중에서 지금까지 1994년 이전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림책은 <세밀화로 그린 보리 아기그림책>(1994년, 보리, 이태수)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이미 이때는 상당량의 창작 그림책이 발행(170여종)되던 때였다.

<강아지 똥>을 비롯해 <만희네 집>, <술이의 추석 이야기>, <오소리네 집 꽃밭>, <심심해서 그랬어>, <아씨방 일곱 동무>, <동강의 아이들>, <노란 우산>, <구름빵>, <넉 점 반>, <엄마 마중>, <여우 누이>등 현재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의 근간이 된 작품들이 이 시기에 모두 나왔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주빈국관에 초대 전시된 100권의 그림책 중에서<홍부와 놀부>(이우경. 프뢰벨 미디어. 1997), <사막의 공룡>(강우현. 한림. 1992)등 17종을 제외한 나머지 83종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다. 다수의 절판 그림책의 공통점은 작가가 지금까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발행했던 출판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에 이유가 있다.

반면에 펜데믹 시기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의 사회활동이 멈춤 상태에 있던 2020년~2022년의 특정 기간 2년을 기준으로 도서관(사례/표본 추출 인구 50만 명 A도시)대출 이용을 살펴 보았다. 관외 대출그림책 100종을 이용 순위별로 나열한 목록에서 발행일이 가장 빠른 것은 <구름빵>(백희나. 2004년)과 <준치 가시>(김세현. 창비. 2006)이고 나머지는 거의 모두 2010년 이후 발행이었다. 더 극명하게 나타난 결과는 최근 2~3년에 발행된 책이 사실상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 전국공공.작은도서관 1300여곳(전체 도서관의 82.2%)의 대출 내역을 수집하는 ‘도서관 정보나루’를 통해 비슷한 기간(2021년1월~2022년 6월19일)의 데이터(영유아/0세~5세. 유아/6~7세)를 분석해 보면 이 기간 동안의 1,000순위 가운데 300위까지 간추리고 여기서 우리 창작 그림책만 선별했을 때 109종이 나왔다. 이 중에서 2005년 이전 발행은 <강아지 똥>(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1996년)외 3종이고 74종이 2015년 이후, 14종이 2017년, 2019년이 42종 이후 발행이었다. 10종이 3명의 작가가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영진, 백희나, 윤설희, 윤정주, 이지은 작가의 37종 그림책이 40% 이상을 차지한다.

유통 판매나 도서관 열람이 아닌 관외 대출이라는 한계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쏠림 현상은 분명히 드러나 보인다.

정리해 보면,

첫째, 10년 이내의 출간 그림책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특히 3년 이내 발행 40%). 두 번째, 작가에 따라 스토리텔링이 강한 그림책이 아이들(0~7세 대상)과 이를 보여주는 부모들에게 절대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 셋째, 언론 매체나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이 많은 일부 자료가 관외 대출에서도 우선 순위가 되었다는 것이 통계에서 나온다.

주목할 점은 청소년 이상 성인 대상 그림책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빌려보는 것과 소장하는 책의 차이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 미국의 경우를 보면 뉴욕공공도서관 역사상 가장 많이 대출된 책 10권(2020년 1월 기준) 중 어린이책이 6권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림책 3종이 있다.

1위. 《The Snow Day》(눈 오는 날)》 by Ezra Keats (485.583회)

4위. 《Where the Wild Things Are(괴물들이 사는 나라)》 by Maurice Sendak (436.016회)

10위 《The Very Hungry Caterpillar(배고픈 애벌레)》 by Eric Carle (189.550회)

이들 모두 1960년대부터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아온 고전인데도 아직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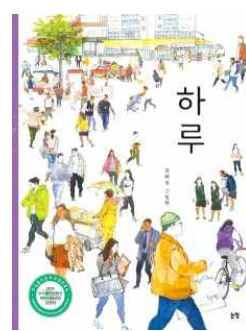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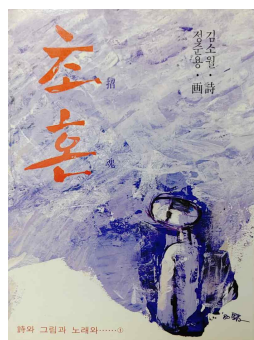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책에서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스테디셀러는 존재하는가, 문학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여기에 답을 한다면 그림책은 어른의 손을 거쳐 어린이 독자에게 전해진다는 것, 즉 1차 선택권이 어른에게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책은 문학과 달리 어른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세대교체가 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어른 책의 고전이나 스테디셀러 개념을 동일시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중견 이상의 작가가 두텁게 형성되어 신인 데뷔가 더딘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신인 작가 등장이 활발하여 독자의 선택을 기다린다.

그림책의 유행 패턴은 다른 요인에서도 나타나지만 아직도 정체되지 않는 시장의 역동성과 거품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어른 그림책이라는 새로운 장르

<이렇게,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2021. 신혜진. 필 무렵), <한계령을 위한 연가>(주리. 2017. 바우술), <백살공주 꽃대할배>(2021. 박일례. 출판놀이), <오늘도 기다립니다>(2020. 정혜경. 한울림어린이), <흔들린다>(2017. 한성옥. 작가정신), <하루>(강혜진. 2018. 논장), <내일은 맑겠습니다>(이명애. 2019. 문학동네).

열거한 책들은 그림책이지만 분명히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연령대의 책이 아니다. 이런 그림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기 시작한 ‘어른 그림책’의 확장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18년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어떤 이유인가? 왜 갑자기 마치 전혀 새로운 장르처럼 출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모든 것이 모바일로 연결되는 사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점점 타인들과 고립되는 사회 1~2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65%까지 증가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2020년 통계청 발표 1인가구 30.4%) 사람들은 외롭다. 혼자 나이 들어가는 가는 것이 외롭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 원치 않는 일에 몸과 마음이 찌들어 가는 것도 외롭게 한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팬데믹 이후 더 달라져 버렸다. 그러니 어디선가 위로받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림책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일부 발견한다. 홀로 사는 세대뿐만 아니라 문학과 인문학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간절한 문장 몇 줄과 펼치면 곧바로 감정이입이 가능한 그림책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작은 위안이 된다.

뭐라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삶의 일부분을 작가는 곤충의 더듬이가 되어

이를 포착해 낸다.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다.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치유가 절실한 이에게,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서는 그림책들, 여기에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엄마에게>(2014. 서진선. 보림), <오늘도 기다립니다>(2020. 정혜경. 한울림어린이)등은 차라리 캐릭터가 어린이의 등장이어서 모든 세대에 적합한 편이다. 어린이 특히 유아에게 이야기 들려주기와 언어 교육으로 보여주었던 그림책이 어느새 어른에게까지 성장해버렸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림책의 분류에 있어서도 준비가 필요한 때가 왔다. 누군가에 꼭 있으면 좋을 한 권의 그림책이 잘 몰라서 묻혀버릴 수 있어서다.

또 한가지는 그림책의 본질을 묻는 일이다. 그림책의 정체성에 대해 묻고 돌아보면서 성장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림책의 팬덤화. 가능한가

그림책 작가의 활동 영역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 완성된 작품을 출판사를 통해 상업 유통망으로 독자에게까지 전달된다. 도착지는 개인일 수도 있고 도서관으로 가기도 한다. 작가들은 요즘에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응하여 강연이나 워크숍에 참여한다. 이런 공개된 자리를 통해 작가를 가까이 지켜본 독자들은 점점 작가의 작업 취향에 빠지게 되고 그의 다음 작품까지도 기대하고 계속 관심 갖는다.

어느 작가의 워크숍에서 그가 말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미술전공자로 2009년에 그림책을 내겠다고 마음먹고 많은 곳을 기웃거리고 그림책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든 작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에 서글픔이 느껴졌지만 스스로 다그쳤지요. 언젠가 나의 작품을 들고 반드시 데뷔하리라” 그는 이제 여러 종의 그림책을 낸 작가로 독자 앞에 나선다. 독자들은 그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책 한 권 속의 절박함에 대하여 전달받는다. 극소수의 일부 작가만이 OMSU(뮤지컬,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활용)의 사례와 많은 대중 앞에 노출되는 행운을 누리지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표현 방식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영역을 만들어가는 김재홍, 전미화, 안녕달, 고정순 등을 비롯한 꽤 여러 작가들이 작품의 독창성 및 자신만의 사유 세계를 이야기와 함께 녹여내면서 독자들을 만난다. 그러나 모든 작가들이 공개 활

동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에만 전념하기도 하고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독자는 책을 중심으로 작가를 만난다. 언어로 구현하기 힘든 깊은 내면의 세계를 작가는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태워가며 한(폭, 장면)바닥씩 만들어 낸다.

그렇게 할 때 열렬한 지지층이 서서히 생겨난다. 한국 영화 또 한편의 작품이 1000만 관객 동원 스무 번째 넘는 기록을 2022년 6월에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다. 영화와 노래 등 대중예술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록에 도달하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림책은 인쇄 매체의 특성 때문에 용광로처럼 대중들의 분출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그림책에서 획기적인 100만부 판매 돌파 기록(강아지 똥/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이 작품의 판매량은 원작과 그림작가에 대한 최대의 찬사이자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폭발하고 사라지는 소비재가 아닌 점이 다른 대중예술 분야와 다르다. 1996년 출간 이래 15년여 만에 100만부 발행 뒤 현재까지도 누적 집계 130만부를 훌쩍 넘기고 있는 상황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자연에 대한 성찰, 그리고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하는 작품 속 메시지가 모든 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이것은 원작자의 삶, 생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일이 그림책을 통해 전해 온다는 사실이 경이로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그림책의 팬층은 작품의 대상이 모든 연령대를 향하거나 주로 성인 대상일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만 그 파장은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고요할 뿐이다.

우리 그림책,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문화 수위에 맞추어 비교적 순조롭게 그림책을 받아들이고 키워갔다면 우리나라는 1946년 이래 두 차례 있었던 단절의 시기와 교육, 우리의 소비 패턴과 맞물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왜곡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 전쟁으로 인한 소멸과 같은 장기간의 진공상태는 커다란 생채기와 같았다. 그럼에도 현재 매우 활발한 분위기는 출판사, 작가, 독자, 도서관, 애호가 및 활동가들이 그림책 생태계를 한층 두텁게 만들어가는 중이다.

특히 젊은 작가층이 계속 진입하면서 새로운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우리 그림책의 큰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기에 무척 희망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취약함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대부분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림책이 더 이상 단절의 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온 오프라인 통합 아카이브 공간과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 데이터의 생성,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행사 등에 유용하게 제공한다.

두 번째. 유아 교육 기관과 학교에서의 그림책 교재 선택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림책의 수명이 길어지려면 한정된 애호가층의 관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도서관 등의 신간 및 복권 구매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시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현재 2. 3세대 작가들 일부에서까지 이어져 온 개별적 삶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그림책 판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것은 성장 배경이 전혀 다른 신진 일러스트레이터들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